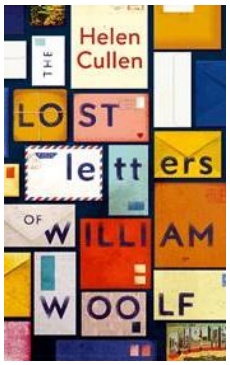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THE LOST LETTERS OF WILLIAM WOOLF
가제 : 윌리엄 울프와 길 잃은 편지
저자 : Helen Cullen
출판사: Michael Joseph
발행일: 2018년 7월 12일
분량 : 464 페이지
장르 : 영미소설일반

*** 영국, 미국, 독일, 그리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출판 계약 체결**
*** "편지를 향한 러브레터. 멋진 글로 언어의 힘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오마주. 펜과 종이가 만들어내는 마법에 찬사를 보내는 소설이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The Little Paris Bookshop』의 저자 니나 조지**

이메일과 스마트폰이 우리의 일상에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기 전에는 전하고픈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했었는지 상상도 하기 힘들 때가 많지만, 우체국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우표와 보낸 사람의 손 글씨 자체만으로 내용을 보기도 전부터 마음이 설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다. 이사를 가도 주소가 바뀌었다고 일일이 연락을 하지 않는 이상, 예고 없이 보낸 편지들은 갈 곳을 잃고 말았던 그 시절에 반송할 주소도 없고 새 주소도 알 수 없어 허공에 떠 버린 우편물은 다 어디로 갔을까?

윌리엄 울프는 이스트 런던에서 그 '편지 탐정'으로 10년 넘게 일하고 있다. '죽은 편지들의 창고'라 이름 붙여진 곳에서 주인 잃은 편지와 소포를 꼼꼼히 뜯어보고 단서를 찾아서 보낸 사람이 원했던 최종 목적지로 보내는 것이 윌리엄과 다른 편지 탐정들의 역할이다. 1990년대, 디지털 기술이 세상을 점령하기 전, 청구서나 통지문 외에도 지극히 사적인 우편물이 여전히 집배원들을 통해 전달되던 시대를 배경으로 불특정 다수가 보낸 온갖 편지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의 독특한 직업을 그린 이 데뷔 소설은 우연히 윌리엄의 손에 특별한 편지가 한 통 들어오면서 흥미로운 미스터리가 시작되고, 이 미스터리는 인간의 마음과 감정에 관한 깊이 있는 통찰로 이어진다.

윌리엄이 이 일을 시작한 건 전적으로 아치 삼촌의 영향이 컸다. 수십 년을 편지와 소포의 원주인을 찾아준 아치 삼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윌리엄과 만날 때면 유독 기억에 남는 편지 속 사연을 들려주곤 했다.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진한 기억과 꿈과 희망, 사랑, 상실,

분노, 아쉬움을 안고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삼촌의 이야기를 통해 생생히 느꼈다. 윌리엄은 이야기의 힘에 푹 빠졌고, 자연스레 멋진 작가를 꿈꿨다. 하지만 글을 읽고 논하는 것과 직접 글을 쓰는 건 너무나 다른 일임을 깨달은 윌리엄은 여전히 뜨거운 이야기에 대한 열정을 우편물 탐정 일을 하면서 해소하고 있다. 이제는 없어진 우편번호가 붙은 편지들,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 글자들로 채워진 우편물이나 비에 젖어 알아볼 수 없는 주소, 배달 과정에서 주소가 적힌 라벨이 떨어져버린 편지, 다 찢어지고 망가진 소포들에는 생일을 축하하거나, 실연의 상처를 분출하고 미처 하지 못했던 고백을 전하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24시간 돌아가는 죽은 편지들의 창고에서 야간 팀이 무작위로 나눠 서른 명의 탐정들 책상에 올려둔 우편물 외에도, 윌리엄은 매일 산더미처럼 들어오는 편지들 가운데 하나를 직접 뽑아서 주인을 찾아주는 자신만의 의식을 남몰래 즐겨 왔다. 커다란 꾸러미에 팔을 집어넣고 휘휘 저어서 손에 잡히는 편지를 하나 건져내는 이 의식은 윌리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반드시 주인을 꼭 찾아달라고, 편지가 직접 찾아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름다운 필체로 발신자 주소도, 수신자 주소도 없이 "사랑하는 이에게"라고만 적힌 편지를 이 의식을 통해서 건져낸 윌리엄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신선한 충격에 휩싸인다. 윈터라는 이름의 여성이 아직 만나지 못한 운명의 사랑, 소울메이트를 향한 그리움과 간절함을 고백한 이 편지 속 문장 하나하나가 마치 윌리엄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졌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말 그대로 허공에 쓴 편지에 묘한 떨림을 느낀 윌리엄은 이것이 불행한 결혼생활에서 벗어나고픈 심정이 엉뚱하게 전이된 것인지 혼란스러워 진다.

아내 클레어와는 대학 시절에 만나 서로 의지하고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어느새 두 사람 사이에는 대화도, 공감도, 서로를 아끼는 마음도 희미해졌다. 변호사로 일하는 클레어는 위대한 작가가 되겠다던 꿈을 너무 쉽게 포기하고 허무맹랑한 직업에 만족하는 윌리엄이 안타깝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했다. 윌리엄은 저녁마다 퇴근 후 집에 오지 않고 요리 학원부터 사진 강좌, 폴 댄스 동호회까지 취미 활동에 푹 빠진 클레어를 보면서 이러다 영영 멀어져 버리는 건 아닌가 두려우면서도, 둘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누는 순간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저 서먹한 채로, 아무 것도 묻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나 껍질만 남은 관계와 표면적인 평화는 윌리엄과 클레어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줄 뿐이었다. 윌리엄은 이런 타이밍에 윈터의 편지를 발견했다는 사실과, 스스로도 놀랄 만큼 마음이 크게 동요하는 것을 느끼면서 무작정 그 편지의 주인공을 찾아보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윈터의 정체를 찾아 나선 윌리엄은 덮어 놓고 모른 척하기만 했던 감정들과 대면하고 잊고 있었던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한다. 편지와 글이 가진 힘을 소재로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인간의 마음을 탐구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헬렌 쿨렌(Helen Cullen)은 유니버시티 칼리지 더블린에서 연극을 공부하고 아일랜드 공영 라디오 방송 RTE에서 7년간 일했다. 이후 런던에서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면서 타임지, BBC 등에 글을 기고해 왔다. 가디언/UEA 소설 창작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제목 : BABY TEETH
가제 : 젖니
저자 : Zoje Stage
출판사: St. Martin's Press
발행일: 2018년 7월 17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심리 스릴러

*** 영국, 폴란드, 체코 판매 완료 / 초판 10만부 인쇄**
*** "2018년 여름에 읽을 베스트 도서 - 양육과 결혼을 거침없이 탐구하며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 존재하는 균열을 드러낸, 흡입력 있는 스릴러" - 「퍼블리셔스 위클리」**
*** "<케빈에 대하여>와 <나를 찾아줘>, <오멘>이 결합된 듯한 소설" - 「엔터테인먼트 위클리」**

아이를 낳기 전, 모든 부모는 그 아이와 함께 할 행복한 시간들을 떠올린다. 물론 이상과 현실은 늘 다르기에 막상 아이를 키우다 보면 즐겁고 아름다운 순간만큼 생각지도 못했던 괴로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아이가 아무리 말을 안 듣고 말썽을 피워도 다 한 때겠거니, 생각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유독 심하게 반항하는 수준을 벗어나서 진지하게 부모를 증오한다면? 그래서 부모를 '없애는' 방법을 고민하고, 꽤 영리하게 그 생각을 현실로 만든다면? 초판 10만부 인쇄가 확정될 만큼 출간 전부터 화제를 낳고 있는 데뷔 소설에서 작가는 엄마를 죽이려 하는 일곱 살짜리 딸의 섬뜩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빠를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존재로 여기고 어른이 되면 아빠와 꼭 결혼하고 말리라 결심하는 것까지는 딸아이들이 어릴 때 흔히 꿈꾸는 일처럼 보이지만, 한나에게는 이것이 그저 철부지 꼬마의 소망이 아니다. 진지하게 아빠와 단둘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꿈꾸는 한나의 눈에 엄마는 가장 큰 방해요소이고, 따라서 없애버려야 할 대상이 되고 만다. 무섭도록 영리한 한나는 조용히 숨죽여 엄마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어떻게 해야 엄마를 가장 미치도록 괴롭게 만들 수 있는지 연구한 뒤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해 나간다. 그러나 아빠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하고 귀여운 딸의 모습으로 바뀐다. 한나의 엄마, 수제트는 남편에게 자기 딸의 이중적인 면을 납득시켜야 하는 기막힌 상황에 내몰리고, 점점 더 극으로 치닫는 한나의 계획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는다. 내 딸이 나를 죽이고 싶어 한다는, 도저히 믿을 수 없지만 확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정말로 벌어질까? 공포감마저 들게 하는 한나의 소름 끼치는 생각과 계획, 점점 절망의 늪에 빨려 들어가는 수제트의 몸부림이 시작된다.

한나가 처음부터 수제트를 없애려 한 것은 아니었다. 엄마에게 일종의 '구제될 기회'를 주려고 한 적도 많았지만, 네 살쯤부터 엄마는 번번히 한나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독한 마음을 품게 만들었다. 가정 주부인 엄마는 거의 매일 한나와 함께 지내다가 가끔 아빠 회사나 친구들 모임이 잡히면 베이비시터를 불러 놓고 외출하곤 했는데, 그게 결정적인 문제였다. 한나는 엄마가 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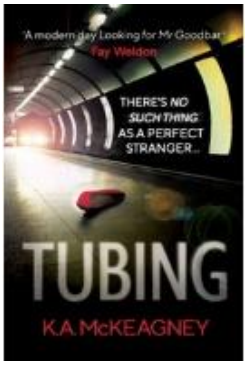
르르하게 차려 입고 외출하는 그 저녁이, 낯선 사람에게 자신만 덜렁 남겨놓고 나가는 그 뻔뻔함이, 그리고 자신이 아빠 곁에서 함께 아빠의 주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 서러움이 미치도록 싫었다. 하지만 엄마는 외출이 예정된 날이면 아침부터 들떠 있었고 한나는 단번에 알아차렸다. 어떻게든 못 나가게 하려고 여러 가지를 시도했지만 처음에는 소용 없었다. 안방 침대 밑에 숨어 있다가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빼내서 숨긴다던가 엄마 옷을 망가뜨리는 것 정도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한나는 베이비시터를 울며불며 고함치게 만드는 것으로 결국 엄마의 밤 외출을 원천 봉쇄하는데 성공했다. 똥오줌을 바닥에 갈기는 것은 기본이고, 재우러 온 베이비시터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거머쥐고 두피에 피가 날 때까지 꽉 붙들고 잡아 뜯기도 했다.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기겁을 하는지 포착하는 능력이 탁월한 한나는 이런 식으로 유치원에서도 몇 번이나 쫓겨났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으로 주변 모든 사람, 특히 엄마를 돌게 만들었다. 아무리 애원하고 어르고 달래도 한나가 말을 하지 않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한 엄마아빠는 해볼 수 있는 검사는 다 시도했지만 어떤 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은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한나 스스로 입을 닫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이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엄마를 휘두를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생겼다는 기쁨을 버리고 싶지 않았다.

수제트는 고등학교 때부터 크론 병 때문에 늘 긴장을 놓지 못한 채로 살았다. 조금만 컨디션이 나빠도 위장에 구멍이 뚫리고 응급 수술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생겨서 먹는 것도 늘 조심해야 하고,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자잘한 증상도 세심하게 관리해야 했다. 비록 건강은 좋지 않아도, 사랑스러운 딸 한나가 태어났을 때 아이만은 누구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죽을 힘을 다하리라 마음 먹었던 수제트는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어렴풋이 왠지 엄마를 경멸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말도 안 되는 착각이겠거니 생각하고 넘어가려 해도, 아이가 클수록 그 느낌은 더욱 선명해졌다. 한나는 집에 있는 모든 식물의 이파리를 하나도 남김 없이 다 뽑아버리고, 오렌지 주스에 아세톤을 몰래 섞고, 통유리 창에 묵직한 공을 온 힘을 다해 집어 던지고는 기겁해서 달려온 수제트의 얼굴을 바라보며 씩 웃기 일쑤였다. 평소에는 눈을 마주치거나 옆에 있으려고도 하지 않는 아이는 오직 남편 알렉스에게만 귀여운 강아지처럼 굴었다. 뭐가 잘못된 걸까? 어떻게 아이가 이렇게까지 엄마를 미워할 수 있을까? 수제트는 자신이 좋은 엄마가 아니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생각에 자책하면서 이를 악물고 애를 쓴다. 그러나 아이의 마음을 열기 위한 수제트의 발버둥은 한나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알렉스는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고 믿으면서도 직접 한 번도 보지 못한 한나의 기막힌 행태를 들으며 혼란에 빠진다. 겨우 일곱 살밖에 안 된 아이가 그럴 리 없다는 현실 부정과 혼란 속에서 부부가 헤매는 사이, 한나는 보다 치밀하고 정교한 '엄마 없애기' 계획을 준비한다.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충격적인 결말이 기다리는 흡입력 강한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조제 스테이지(Zoje Stage)는 작가이자 영화감독이다. 2008년에 뉴욕 예술재단 극작가로 활동하고 2012년에는 '독립영화감독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위 작품이 소설 데뷔작이다.

제목 : TUBING
가제 : 튜빙
저자 : K. A. McKeagney
출판사: RedDoor Publishing Ltd
발행일: 2018년 5월 10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예리하고, 영리하고, 에로틱한 지적 스릴러. 마지막까지 놀라움을 안겨줄 것이다." - 소설가 맷 손(Matt Thorne)
* "흥미진진하고 독창적인 스릴러! 빠른 속도감과 함께, 결말까지 여러 번 충격을 안겨주는 소설" - 소설가 샘 캐링턴(Sam Carrington)

딱히 불만족스럽진 않지만 썩 즐겁지도 않은 삶에 지쳐 있던 폴리는 남자친구와 3주년이 되던 날, 놀라운 일을 경험한다. 회사 동료와 술을 마시다 지하철 막차를 겨우 탔는데,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자 어디선가 뜨거운 시선이 느껴졌다. 처음 보는 남자가 노골적으로 쳐다보는 눈길이었다. 착각했나 싶어 모른 척 하려고 했지만, 남자의 시선은 끈질기게 폴리를 따라왔다. 몇 정류장이 지나고 둘 사이에 서 있던 사람들이 내리자 급기야 폴리 쪽으로 다가온 남자는 손을 뻗어 폴리의 손을 잡았다.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남자의 접근에 놀랄 만도 한데, 폴리는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 만큼 수려한 외모에 과감하지만 깃털처럼 부드러운 손길에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 폴리가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챈 남자는 더 적극적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고, 두 사람은 진한 키스를 나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서로 누구인지도 모르는 두 사람이 쌩쌩 달리는 전철 안에서, 만난 지 몇 분만에 말 한 마디 나누지 않고 가장 내밀한 욕구를 발산하는 짜릿한 경험, 일명 '튜빙'이라 불리는 은밀한 세계에 폴리가 처음 발을 들인 순간이었다.

남자는 어두운 터널이 지나는 동안 다른 승객들이 멀쩡히 앉아 있는 전철 한 켠에서 폴리를 절정에 이르게 한 뒤, 다음 정거장에서 문이 열리자 유유히 사라졌다. "우리 다시 봐요."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는 말만 남긴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나간 남자의 등을 보면서, 폴리는 다시 환해진 불빛 아래 가까스로 이성을 되찾으려 애썼지만 그 짧고 강렬한 경험은 내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얼떨떨한 기분으로 지내던 폴리는 뜻밖에도 가까운 곳에서 단서를 얻는다.

사실 그날 폴리가 과음을 한 건, 동거 중인 남자친구 올리버가 3주년 기념일에도 별다른 계획이나 언급도 하지 않아서 속상하던 차에 동료까지 슬슬 약을 올렸기 때문이다. 수다스럽고 호들갑스러운 동료가 퇴근 후 잠깐 한 잔 하자고 제안해서 바에 온 것까진 좋았는데, 오늘이 남자친구와 3주년이라는 폴리의 말에 난리법석을 부리면서 왜 아무 것도 안 하고 이러고 있냐고 놀라는 것이 영 거슬렸다. 올리버가 누가 봐도 완벽한 남자친구라는 사실은 폴리도 잘 알고 있었다. 정형외과 의사라는 번듯한 전문직에, 폴리가 무료 신문 <런던 보이스>를 발행하는 회사 법무팀에서 비서로 일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을 통해서 연줄을 놓아준 것도 올리버였다. 하지만 꽤 오래 만나는 동안 관계는 시들해졌고, 올리버는 늘 처음처럼 자상하게 챙겨주려고 하지만 폴리는 영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 날도 올리버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밤 늦게까지 수술 일정이 꽉 차 있으니 기다리지 말라는 말에 애써 덤덤한 척 했는데 막상 동료가 아픈 곳을 찌르니 눈물이 왈칵 쏟아진 것이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폴리는 올리버가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고, 수술 때문에 바쁘다는 것도 다 연막이었을 뿐 저녁부터 자신을 찾아 다녔다는 사실을 전해 듣는다. 그런 줄도 모르고 진탕 마신 폴리는 전철에서 왠 낯선 남자와 지극히 충동적인 일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생전 처음 겪은 그 일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폴리는 가슴 깊이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전철에서 만난 남자의 정체가 너무나 궁금해서 출근해서도 하루 종일 넋이 나가 있었다. 그러다 점심 시간에 전날 겪은 일을 남에게 들은 이야기처럼 회사 사람들에게 흘리는데, 놀랍게도 잘 아는 사람이 있었다. 트위터나 다른 수단을 통해 특정 시각에 특정 전철역에서 만나기로 미리 약속을 정해놓고 남녀가 전철에서 만나 서로에 대한 정보는 전혀 나누지 않은 채로 성적인 욕구를 나눈 뒤 헤어지는, 일명 '튜빙'이라 불리는 행위가 알게 모르게 퍼져 있다는 이야기였다. 폴리는 그 남자를 한 번 더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튜빙을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한다. 그 때만 해도, 얼마나 위험한 일에 제 발로 뛰어들고 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인파로 북적대는 전철 안에서 말없이 이루어지는 튜빙은 엄연히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만남이었지만, 폴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순간의 쾌락을 위해 중독되듯 그런 만남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란다. 결국 처음 만났던 그 남자를 찾은 폴리는 그와 다시 만나게 되지만, 더 이상 가볍고 간편한 잠깐의 마주침으로 끝나지 않는다. 튜빙은 특별한 만남을 찾는 별난 사람들만 모이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정치인, 언론인 등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사람들까지 개입되어 있는 훨씬 거대한 조직의 일부였다. 게다가 폴리는 자신을 홀렸던 그 남자에게 무섭도록 집착하면서 따라다니다가 그가 다른 여자와 전철에서 만나는 장면을 목격하고 질투심에 사로잡히는데, 다음 날 그와 함께 있던 여자가 시체로 발견됐다는 뉴스가 전해진다. 공식적인 사인은 여자가 달려오는 전철에 몸을 던져 자살한 것으로 발표됐지만 폴리는 절대 사실이 아님을 확신한다. 새라라는 이름의 그 금발 여자의 죽음은 폴리가 빠져든 남자, 세바스찬 블랙과 분명 관련이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훨씬 더 음흉하고 지저분한 계획이 숨겨져 있다. 지루한 일상에 약간의 활력소가 되기를 바라며 시작한 튜빙은 폴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을 가장 거대한 위협이 되고, 소설 중반부터는 폴리의 암울한 가정사도 수면 위로 드러나 사태는 더욱 종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과연 폴리는 죽은 여자와 같은 운명이 되기 전에 벗어날 수 있을까? 신선한 소재가 돋보이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K.A. 맥케그니(K.A. McKeagney)는 브리스톨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브루넬 대학교에서 문예창작 석사 과정을 마쳤다. 위 데뷔 소설의 기틀이 된 논문으로 커티스 브라운 상을 수상했다. 현재 런던에서 의학 저널과 소비자 정보지 등에 게재되는 건강 정보 에디터로 일하며 글을 쓰고 있다.

제목 : MOTHER OF INVENTION
가제 : 발명의 어머니
저자 : Caeli Wolfson Widger
출판사: Little A
발행일: 2018년 5월 22일
분량 : 364 페이지
장르 : SF소설

* **"복잡하게 얽힌 관계들, 불완전한 기술, 디스토피아적 분위기가 반쯤 느껴지는 배경이 흡입력으로 작용하는 소설" - 「라이브러리 저널」**
* **"재미 있고, 슬프고, 두려움과 함께 많은 생각을 일으킨다. 일하는 여성에게 '어떻게 저걸 다 해낼 수 있는지 모르겠어'라고 이야기해본 적 있는 사람은 꼭 읽어야 한다." - 「워싱턴 포스트」**

여성에게는 투표권도 없던 시절이 믿기지 않을 만큼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지고 '남자들이 하는 일'로 여겨지던 직종에서 당당히 자리 잡은 여성들도 늘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이나 정책과 별도로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주춤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 바로 출산이다. 9개월이라는 임신 기간도 결코 짧지 않지만 출산 후에 컨디션을 회복하고 아기의 첫 생애를 함께 하는 중요한 기간까지 더하면 어쩔 수 없이 수 개월은 일에서 손을 놓고 지내야 한다. 엄마가 된 개개인에게는 소중하고 꼭 필요한 기간이지만 치열하게 돌아가는 일터에서 그런 사정까지 다 배려해주지는 않는다.

그리 멀지 않은 미래를 배경으로 한 이 소설에서 작가는 일하는 여성이라면 한 번쯤 고민할 만한 이 문제가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 해결됐을 때 벌어지는 일들을 흥미롭게 그린다. 실리콘 밸리에서 승승장구하는 유능한 여성 사업가, 테사 캘러한은 임신 기간을 9개월에서 단 9주로 단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자이자 동업자인 루크 짐머만과 함께 첫 번째 임상시험에 돌입한다. 성공하기만 하면 신의 영역과 다름 없는 임신과 출산의 경험이 대대적으로 바뀌게 될 이 중대한 실험을 거치면서 주인공 테사가 겪는 개인적인 변화와 갈등, 미처 대비하지 못한 기술의 허점,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고유한 역할에 관한 고민이 함께 제시된다.

'씨홀스 솔루션'이라 이름 붙여진 배아 발달 촉진 기술은 사실 테사의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탄생한 발명품이다. 대학 시절부터 남다른 아이디어와 타고난 사업가적 기질을 발휘하여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새로운 기술로 이미 벤처 회사를 두세 곳 성공적으로 일군 테사는 마흔 살에 결혼을 했다. 그리 젊지 않은 나이에 가정을 꾸리면서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자신이 누구보다 일을 사랑하고 번뜩이는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큰 희열을 느끼는 사람을 잘 아는 테사는 절대 좋은 엄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남편 피터가 결혼 4년째에 접어든 어느 날 뜻밖의 소망을 꺼냈다. 결혼 초부터 운영해온 회사가 아내의 아낌없는 지원에도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 지쳐버린 피터는 '전업 아빠'가 되고 싶다고 선언했다. 아이를 낳아주기만 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도맡아서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테사가 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지 전적

으로 이해하므로 이런 결심도 가능하다는 말로 테사를 설득하고 나선 것이다. 고민 끝에 피터의 뜻대로 하기로 했지만 임신은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다. 2년 동안 인공수정과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반복해도 매번 실패였다. 테사가 이제 그만 애쓰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자, 피터는 입양이나 대리모를 제안했다. 하지만 테사는 그런 대안은 택하고 싶지 않았고 속상한 마음으로 며칠을 보내던 중, 문득 '씨홀스 솔루션'의 토대가 된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기나긴 임신과 출산의 과정은 여성의 사회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불임과 유산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수정된 배아의 발달 속도를 안전하게 가속화시켜 단 9주 만에 출산까지 모든 과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되었다. 전설적인 소셜미디어 업체 '라이크 미'의 설립자 리드 짐머만의 외동아들인 루크가 테사의 동업자가 되기로 하면서 어마어마한 개발 비용은 충당됐지만 임상 시험이라는 중대한 고비가 기다리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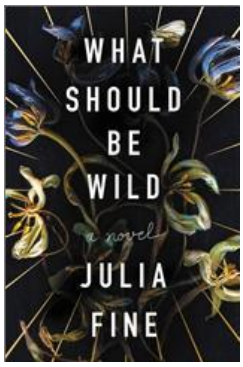
루크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아버지와 만나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남처럼 살았다. 그러나 열여덟 살이 되던 해, 조깅을 하던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유일한 자식인 루크에게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자 평범했던 루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타고난 야심가인 그는 직접 사업을 시작하는 대신 유망한 벤처 사업을 선별하여 투자하는 쪽을 택했다. 그러나 결과는 번번히 실패였고, 언론은 루크라는 이름 대신 '리드의 아들'로 그를 칭하면서 은근히 실패를 비꼬곤 했다. 그래서 테사의 사업은 그에게도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중대한 일이었다. 특히나 안전성과 배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인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사람들을 안심 시킬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했다. 루크와 테사는 첫 임상시험에 참여하겠다고 나선 천여 명의 지원자 중 세 명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시험에 돌입한다. 과거 테사가 데리고 일하던 직원인 케이트와 패션모델 라토냐, 그리고 쉰 살을 코앞에 둔 그웬까지 총 세 명의 여성들이 '씨홀스 솔루션'의 효과를 검증할 첫 대상자로 선정된다. 이 실험에 모든 것을 건 테사는 연구 시설에 아예 함께 입소해서 사소한 것까지 전부 모니터링한다. 그러나 9주라는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 동안 테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다. 회의적인 시선에도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었던 신기술에 어쩌면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느끼게 한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삐걱대던 결혼생활까지 위태로워진다.

착상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세 명의 피험자 중 한 사람이 의도치 않게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사실과 함께 두 아기의 몸이 붙어 있는 샴 쌍둥이일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동업자인 루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테사에게 중대한 사업 기밀을 숨기려는 정황도 포착된다. 여기에 피험자들에게서 심리학적인 문제까지 나타나 결과를 더욱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테사는 불행한 결혼을 이제 끝내고 싶다는 남편의 통보까지 듣게 된다. 테사가 개발한 이 획기적인 기술은 세상의 우려처럼 그저 위험한 조작 기술일 뿐일까? 이대로 사업도, 결혼생활도 다 포기해야 할까? 2021년을 배경으로 여성의 의무와 역할, 가족의 의미를 새로운 시선으로 전망한 흥미로운 소설이다.

<저자 소개>

캘리 울프슨 위저(Caeli Wolfson Widger)는 창업 지원업체를 운영하면서 글을 쓰고 있다. 「뉴욕 타임스 매거진」, NPR 등에 글을 기고해 왔으며 소설 『Real Happy Family』를 썼다.

추가 업데이트



제목 : WHAT SHOULD BE WILD
가제 : 숲으로
저자 : Julia Fine
출판사: Harper
발행일: 2018년 5월 8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판타지/성장소설

*** 경매로 수십만 달러 규모의 출판 계약을 따낸 화제의 데뷔작**
***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능력을 가진 한 소녀의 성장기를 아름다운 현대판 신화로 탄생시켰다." - 『시간 여행자의 아내』의 작가 오드리 니페네거**

손 끝이 닿는 것만으로 생명을 꺼뜨릴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신비한 힘을 가진 채 태어난 소녀 메이시 코세이는 그 능력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부터 온 세상의 관심을 받았다. 이미 심장이 멈춘 엄마 뱃속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임신 사실을 숨긴 엄마는 갑자기 쓰러져 세상을 떠났고, 더 이상 손쓸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의사가 새 생명의 존재를 확인했다. 아직 자궁에서 꺼내기에는 너무 작고 위험해서 그대로 얼마간 두고 지켜보자는 의사의 제안에 아빠는 동의했다. 숨은 끊어졌어도 엄마의 몸은 아기를 보호하고 얼마 동안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할 수 있기에, 결국 엄마의 몸이 부패하기 시작할 때까지 최대한 그 속에 머물러 있던 메이시는 곧바로 수술로 꺼내져 인큐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다. 이 기적 같은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담당의사는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절대 메이시와 접촉하지 못하게 했다. 그 때만 해도, 감염을 막기 위한 이 조치가 연약한 아기가 아닌, 아기를 돌보던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지켜준 보호막이었음을 누구도 알지 못했다.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피부를 가져 집에만 있던 소녀, 드디어 세상으로 나가다

메이시의 무서운 능력은 13개월간의 병원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퇴원 허락이 떨어진 바로 그 날 드러났다. 메이시의 아빠, 피터가 딸이 있다는 소식을 처음 의사에게 들을 때 곁에 있었던 다른 환자의 보호자, 블롯 부인이 그 사이 노쇠한 남편을 잃었고, 아내 없이 메이시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 당혹스러워하던 아빠 피터의 도우미를 자처하며 함께 그의 집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이 메이시를 아기 침대에 눕히고 블롯 부인이 기저귀 가는 방법을 아빠에게 가르쳐주던 그 때, 아이의 통통한 허벅지를 붙잡던 부인이 그대로 쓰러졌다. 때마침 아기 방에 날아다니던 파리를 때려 잡던 아빠는 깜짝 놀라 블롯 부인에게 다가가다가, 방금 잡은 파리가 아기 발치에 떨어졌다

가 다시 윙 날아가는 모습을 목격한다. 아빠는 맥박이 멈춘 블롯 부인의 팔을 끌어다 메이시와 닿게 했고, 예상대로 부인은 숨을 헐떡이며 깨어났다.

오랜 세월 연구에 골몰해온 타고난 학자인 아빠는 자신만의 방식대로 메이시의 신기한 상태를 '활용'했다. 우선 최대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거처를 옮겨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죽은 메이시의 엄마의 친정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대대로 살았다는 거대한 시골 저택으로 이사를 갔다. 그리고 메이시가 외부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집안에서만 지내도록 하고 매일 몇 시간씩 일종의 실험을 실시했다. 능력인지 저주인지 모를 메이시의 특별한 힘을 철저히 연구하기로 한 것이다. 학계의 반응은 뜨거웠다. 철저히 가명으로 발표한 실험 결과는 호기심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순식간에 끌어 모았고 아빠는 메이시가 다섯 살 때부터 직접 공부를 가르치는 동시에 식물, 동물, 무생물 등 다양한 물건을 가지고 능력을 테스트했다. 다른 사람과 살과 살이 닿는 느낌을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그런 친밀한 접촉을 갈망하던 메이시는 세상 밖으로 나가 뭐든 만지고, 느끼며 살고 싶었지만, 자신 때문에 흡족해하는 아빠가 '잘했어' 칭찬 한 마디 해주는 것에 의지하며 조용히 아빠의 말만 따랐다.

메이시가 아빠와 함께 사는 저택 '유니즌'은 한 때 수많은 가족들과 친척들로 북적댔지만 몇 백 년 전부터 '귀신 들린 곳'으로 여겨졌다. 온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건, 아무 이유 없이 높은 곳에서 갑자기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지는 가족들이 생겨나면서부터였다. 게다가 유독 집안의 여자들이 가까운 숲으로 들어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소문도 자자했다. 마을 사람이나 외지인이 길을 잃고 그 숲에서 헤매다가 돌아오면 정신이 어딘가 이상해져서 평소대로 지내지 못하는 일이 잦아지자 사람들은 유니즌에 사는 버클레이 집안 여자들에게 마귀가 씌였다고 수군댔다.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사라지고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을 때까지, 메이시는 이런 소문이나 버클레이 가문의 저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이유도 모른 채 사라진 아빠를 직접 찾아 나서야 하는 메이시는 세상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상한 능력이 자신에게만 있는 것은 아님을 그제야 깨닫는다. 아빠의 흔적을 쫓아 들어간 숲, 그 속에 먼 옛날 숲으로 걸어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는 여성들이 모두 메이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에 발이 묶여버린 자신들을 풀어줄 유일한 존재를 기다려온 이들이 바라는 건 무엇일까? 피터의 실종도 이들과 관련이 있을까? 셜리 잭슨의 오싹하고 소름 끼치는 표현력, 닐 게이먼의 우화적인 신화, 안젤라 카터의 환상적인 스토리라인이 결합된 듯한 이 소설은 가족의 전설을 통해 정체성을 깨닫고 성장해가는 메이시의 여정을 유머와 감각적인 문장으로 그려낸다. 여성의 정체성에 관한 현대 사회의 왜곡된 시선을 은유적 배경 속에서 개성 넘치는 인물들을 통해 드러낸 인상적인 소설이다.

<저자 소개>

줄리아 파인(Julia Fine)은 컬럼비아 칼리지에서 예술석사 과정을 밟으면서 시카고 드폴 대학교에서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다. 위 소설이 데뷔작이다.

Publicity for
WHAT SHOULD BE WILD
JULIA FINE

Barnes & Noble Discover Great New Writers summer pick

Top pick for May in Kirkus Reviews, The Verge, Refinery29, Bookriot, Popsugar, Tor.com, Southern Living, Chicago Review of Books, Purewow, Syfy, UnboundWorlds, The Mary Sue Bookclub, Literary Feline, Charles Milander, All about Romance, Hello Giggles, The Nerd Daily, Bookriot, Misadventures of a Reader

Washington Post: "Julia Fine's story is a barely restrained, careful musing on female desire, loneliness and hereditary inheritances."

San Francisco Chronicle: "[A] rich blend of myth and modernity… *What Should Be Wild* explores the urges of the body, the nature of desire and the power of the spirit. The novel offers ample portions of adventure, suspense and humor and marks the arrival of a formidable new talent."

Wall Street Journal: "*What Should Be Wild* is set in the borderlands between myth and fairy tale, between life and death…. In this astonishing debut, Ms. Fine bids fair to be the Sister Grimmest."

Chicago Review of Books: review and author interview. "Julia Fine's debut novel *What Should Be Wild* has all the ingredients of a Gothic fairy tale, but expounds upon them in fantastic and modern ways. It's gorgeous and exhilarating."

Bustle: "Dark, violent, and yet still so full of wonder and beauty, *What Should Be Wild* is a spellbinding fairy tale that gets at the heart of living life in a female body."

Praise for
WHAT SHOULD BE WILD
JULIA FINE

"*What Should Be Wild* is delightful and quirky, darkly magical. Julia Fine has written a beautiful modern myth, a coming-of-age story for a girl with a worrisome power over life and death. I loved it."—Audrey Niffenegger, author of the international bestseller *The Time Traveler's W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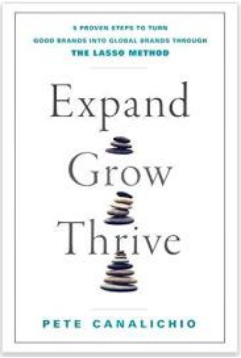
"Fine's stellar debut is a mystical combination of curiosity, curses, and compassion…. Fine creates an entirely new twist on the familiar setup of a young woman facing supernatural obstacles while trying to balance her own blossoming youth. This is an inventive and fascinating modern coming-of-age fairy tale."—*Publishers Weekly* (starred)

"Part fairy tale, part coming-of-age adventure… this book is imaginative and haunting…."—*Library Journal* (starred)

"With convincing intensity and a charming mix of wit, gruesomeness, magic, and romance in the spellbinding mode of Alice Hoffman, Fine offers a provocative fairy tale about womanhood under siege and one young woman's fierce resistance."—*Booklist*

NON-FICTION

제목 : EXPAND, GROW, THRIVE
가제 : 브랜드 라이센싱이 답이다
저자 : Peter Canalichio
출판사: Emerald Publishing Limited
발행일: 2018년 2월 12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경제경영/브랜드라이센싱



* "보조 관리자부터 마케팅 분야 임원까지, 브랜드를 보다 다이나믹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귀중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 뉴웰 러버메이드 상무이사, 넷 밀번(Nat Milburn)
* "저자의 독점적인 LASSO 프레임워크는 전세계적인 상표로 등록하여 브랜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참신한 전략을 제공한다" - 추파춥스 브랜드를 만든 PMV 그룹, 크리스틴 쿨(Christine Cool)

처음 보는 상품인더라도 익숙한 브랜드가 붙어 있으면 왠지 마음이 끌리는 경우가 있다. 잘 아는 브랜드는 제품에 대한 호감도를 결정하는 동시에, 처음 접하는 상품의 품질의 신뢰도를 예측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저자는 성장과 변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시도할 수도 없는 현 기업환경에서의 딜레마를 타개할 묘책으로 '브랜드 라이센싱'을 제시한다. 품질 면에서 경쟁사 제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지만 인지도가 낮아 성장이 제자리에서 맴돌기만 할 때, 불투명한 결과를 기대하며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감당하기 버거울 때, 인지도 높은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중요한 비즈니스 전략인 이 브랜드 라이센싱을 단기적인 홍보 전략으로 여기거나 심할 경우 일종의 속임수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다양한 성공 사례와 함께 직접 개발한 5단계 글로벌 브랜드 성장 전략인 'LASSO'를 소개한다.

비달 사순은 샴푸, 린스 같은 제품부터 드라이기, 빗 같은 헤어 관리 제품 브랜드로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유명한 헤어드레서의 이름이 전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1970년대 말, 헤어 드라이어와 스타일링 제품을 판매하던 소규모 업체가 이 상표를 구입하면서부터였다. 해당 업체의 제품은 전문 미용기술자들 사이에서 꽤 인지도가 높았지만 회사 수익은 딱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추었고, 마침 당시 유명 인사였던 비달 사순이 자신의 이름을 상표로 등록했다는 소식에 곧바로 라이센싱을 구입해서 제품 브랜드로 사용한 것이 신의 한 수가 된 것이다. 저자는 이 같은 사례가 무수히 많다는 사실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실패로 돌아간 정반대의 사례를 제시하며 시장 안에서 안정적인 성장과 확장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통계 자료로 보여준다. 그리고 이어 브랜드 라이센싱의 중요성을 저자가 오랫동안 브랜드 관리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직접 개발한 'LASSO' 전략을 활용하여 조목조목 설명한다.

측면 공략, 덧붙이기, 스토리 만들기, 측정 가능성과 소유 가능성으로 구성된 이 전략은 총 8주간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구성되며, 단계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와 퀴즈 등이 다채롭게 구성되어 그냥 텍스트를 읽고 넘어가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배울 수 있다.

유명 브랜드와 뛰어난 품질을 결합시켜 바늘 구멍처럼 느껴지는 성장 기회를 움켜잡고 탄탄한 입지를 굳히는 법을 알려주는 지침서다.

<목차>

머리말
1. 희망을 붙드는 것
2. 리더가 되는 쪽을 택하라 - 연계 경제에서 성공하는 법
3. 측면 공략 - 원래 있던 자리를 넘어서
4. 덧붙임 - 아끼는 마음
5. 스토리 - 실행의 세상에서 물려 받은 유산이 갖는 힘
6. 측정 가능성 - 꼭 맞는 사이즈에 도달할 것
7. 소유 가능성 - 확장하되 DNA를 잃지 않는 것
8. 브랜드가 최적화되었다면?
9. 라이센싱 결정
10. 라이센싱부터 운영까지 - 라이센싱 브랜드의 미래
11. 맺음말
부록 A-C

<저자 소개>

피터 카나리초(Peter Canalichio)는 브랜드 확장과 상표등록 전략 전문가로 활동해 왔다.

제목: HOW TO BE ALONE
가제: 외로움 혼자 극복하는 법
저자: Lane Moore
출판사: Atria Books
발행일: 2018년 11월 6일
분량: 256 페이지
장르: 에세이

*** 코미디언, 배우, 작가로 유명한 저자가 특유의 씁쓸한 위트와 무한정 긍정주의를 절묘하게 조합하여 전하는 외로움 극복 과정**

나 빼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낯설고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는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 가령 부모님이나 가족, 친구가 정말로 하나도 없다면? 코미디언이자 배우로, 작가로 활발히 활동해온 저자는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준과 환경을 어느 하나도 갖추지 못한 채로 살아온 자신의 삶을 이 책에서 이야기한다. 중학교 때부터 가족에 관한 질문이 주어지면 '없다'고 이야기해야 했고 이후 성인이 된 지금까지 물에 둥둥 떠 있는 기름 방울처럼 세상과 섞이지 못하고 그래서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던 외로움을 어떻게 겨우 잠재울 수 있었는지, 저자는 마치 바로 옆에 앉아서 말하는 것처럼 친근한 어투로 우리에게 털어 놓는다. 다소 투박하지만 그래서 몇 장만 읽어도 진정성이 더 진하게 느껴지는 저자의 이야기는 과도하게 눈물샘을 자극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덤덤하지도 않아서 더 깊이 와 닿는 힘이 있다.

"내 고통을 당신들이 어떻게 알아!" 아픈 기억을 털어내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곤 한다. 아픈 사연 하나 없는 사람은 없고,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성적으로는 사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당사자는 '내 아픔은 오직 나만 안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비슷한 고통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접해도 '나보다 낫네'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심정을 대충은 알겠지만 정확히는 절대로 알지 못하리라는 결론을 내린다. 이런 반복적인 확신은 스스로를 외로움 속에 더 깊이 파묻히게 만들고 결국 누구보다 주변 사람들의 진심 어린 관심을 절실히 바라는 마음과의 괴리는 더 커져서 외로움이 증폭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저자는 어린 시절에 집에서 자신의 부모에게 학대를 받으며 자란 사람은 이 세상에서 혼자만 그런 고통을 겪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 예쁜 것, 즐거운 것을 자랑하는 일이 일상인 어린 시절에는 신나서 떠들어내는 친구들 속에서 우리 부모는 너희 부모와 다르고 우리 집에선 그런 행복한 일들이 없다는 사실을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척 감추는 습관이 생기고, 털어내지 못한 채 속에서 남몰래 커진 상처는 어른이 되고 나처럼 불행한 사람도 많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도 완전히 치유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 오랜 상처는 가벼운 친구부터 깊은 우정을 나누는 친구, 연인, 일 때문에 맺는 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에 영향을 준다.

저자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우울의 늪으로 잡아 끄는 비참한 순간들과 고통

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시로 느낀 괴리와 위화감, 놀라움이 대체 어디서 시작됐는지 오랫동안 탐구한 과정을 이야기한다. 이 해소되지 않는 외로움과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엉뚱한 곳, 엉뚱한 상황에서 울음이 터져 나오는 당황스러운 일들을 어떻게 이겨내려 애썼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마음을 다 꺼내서 보여주듯 생생하게 전한다. 제대로 이해 받지 못하고 그래서 도통 사그라지지 않는 마음의 고통 속에서도 세상의 로맨틱한 순간을 포착하고 영혼을 교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놀라운 힘을 얻게 된 저자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툭툭 튀어 나오는 유머 감각 때문에 웃음이 터지기도 하고 무심한 듯하지만 가장 따뜻한 위로를 받은 것 같은 진한 감동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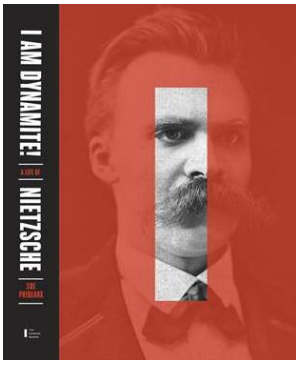
<목차>

고아에 딱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말은 누구나 적용된다
텅 비어 있는 비상 연락망
영원을 약속한 베스트프렌드도 영원의 정의가 바뀌면 소용없다
다른 사람을 만나면 사랑 받고 다 해결될 수도 있다
뉴욕으로 오는 것? 남들이 뭐라고 하건 절대 영화 같지 않다
낯선 이들의 친절함에 기대어 살지만, 유쾌한 방식은 아니다
머릿속에서 데이트할 때가 더 좋았어
이 정도가 최선이면 어쩌지: 정착, 그리고 당신!
DIY 지원군
애가 애를 키운다
내가 지상에 마지막으로 남은 로맨틱한 감성인가?
(이하 생략, 총 17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레인 무어(Lane Moore)는 수상 경력이 있는 코미디언이자 작가, 배우, 음악가로 활동해 왔다. 「뉴욕타임스」 비평가의 선택(Critics Pick)에 선정된 코미디쇼 "Tinder Live!"은 TV 시리즈로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코스모폴리탄」에서 '성과 인간관계' 코너 편집자로 일하면서 GLAAD 상을 수상하고 백악관이 수여하는 '변화 챔피언(Champions of Change Award)' 후보에 올랐다.「뉴요커」, 「워싱턴 포스트」, 「글래머」, 「GQ」 등에도 글을 기고해 왔다.

제목 : I AM DYNAMITE!
가제 : 인간 프리드리히 니체: 나는 다이너마이트다!
저자 : Sue Prideaux
출판사: Tim Duggan Books
발행일: 2018년 10월 30일
분량 : 480 페이지
장르 : 전기/역사



*** 영국, 미국, 덴마크,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브라질, 그리스, 러시아, 중국 계약**

해묵은 사상을 과감하게 깨고 현 상황에 맞는 새로운 가치를 세우고자 노력했던 철학자, 현대 철학의 문을 연 철학자로 알려진 프리드리히 니체는 철학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면서도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다. '권력에의 의지'가 인간의 본질이며, 이것이 세계의 본질을 규정한다고 한 니체의 주장이 나치즘의 권력을 합리화하는 이론으로 악용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다. 이와 더불어 노예와 주인이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얼마나 판이하게 다른지 설명한 노예의 도덕이라는 개념도 그를 대표하는 사상으로 꼽힌다. 하지만 역사적인 인물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니체 역시 기존의 통념을 뒤집는 업적이 너무 막강한 나머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니체하면 떠오르는 두툼한 콧수염과 잔뜩 찡그린 표정, 허무주의, 파시즘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 외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알베르 카뮈와 아인 랜드, 마르틴 부버, 아돌프 히틀러가 동시에 아끼고 사랑한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을까?

저자는 니체라는 철학자이자 문헌 학자의 생애에 대하여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바로 잡는 동시에 소설을 썼던 필력으로 그의 일생을 생생하게 그려낸다. 루터 교회의 목사였던 부친의 영향으로 기독교를 독실하게 믿는 차분한 집안 분위기 속에서 자란 어린 시절과 뇌에 병이 들어 평범하지 않게 세상을 떠난 부친이 남긴 커다란 영향, 교사로 활동하던 시절, 고산 지대에서 홀로 외롭게 철학을 탐구하던 시절의 이야기와 독특한 성격에서 누구나 기이하다고 여길 만한 행동을 하다 결국 정신이 무너져 10년을 정신병에 시달리게 된 가슴 아픈 과정에 이르기까지 니체의 모든 삶이 한 편의 소설처럼 묘사된다. 저자는 니체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들은 물론 사소해 보이지만 그에게 깊은 의미가 있었던 일들을 날카로운 통찰을 담아 흥미진진하게 되살렸다. 니체의 학문적인 삶은 물론 세상에 많이 드러나지 않았던 그의 정서적인 갈등과 고통, 기쁨, 사랑도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풍성하게 담겨 있다. 특히 니체와 가까이 지내면서 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매우 흥미롭다. 어릴 때부터 니체에게는 영웅이었고 마침내 절친한 사이가 되었지만 사상적인 차이로 결국 멀어진 리하르트 바그너, 니체의 마음을 갈가리 찢어놓은 여인 루 살로메, 독일의 국가주의와 반유대주의에 광적으로 빠져들어 니체의 사상과 글을 마음대로 오해석해서 나치의 이데올로기로 바꿔버린 여동생 엘리자베스, 다락방에 갇혀 벙

어리로 살다가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난 남동생의 안타까운 삶도 함께 접할 수 있다. 철학자들 가운데 가장 잘못 알려진 인물로 꼽을 수 있는 니체의 진짜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뜻 깊은 전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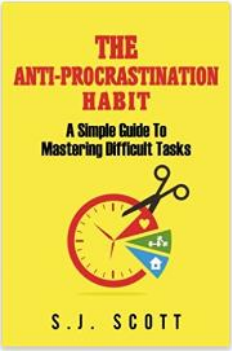
<목차>

1장. 음악의 밤
2장. 독일 출신의 아테네인들
3장. 내 자신이 되는 과정
4장. 낙소스 섬
5장. 비극의 탄생
6장. 해로운 오두막
7장. 개념을 뒤흔들다
8장. 최후의 제자, 그리고 첫 번째 제자
9장. 자유로운 정신과 그리 자유롭지 않은 정신
10장.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11장. 방황하는 자와 그의 그림자
12장. 철학과 에로스
(이하 생략, 총 22장과 연대표로 구성)

<저자 소개>

수 프리도(Sue Prideaux)는 전기 작가이자 소설가로 제임스 테이트 블랙 메모리얼 상(James Tait Black Memorial Prize)을 수상한 『Edvard Munch: Behind the Scream』과 더프 쿠퍼 상(Duff Cooper Prize)을 수상하고 새뮤얼 존슨 상 결승에 오른 『Strindberg: A Life』 등을 썼다.

제목 : THE ANTI-PROCRASTINATION HABIT
가제 : 드디어 꾸물대지 않게 되었다
저자 : S. J. Scott
출판사: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발행일: 2017년 7월 19일
분량 : 156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무슨 일이든 일단 미루다가 손해 보는 사람들 - 꾸물대는 원인의 유형별 해결책 제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똑같은 과제와 목표가 주어져도 해결하는 과정부터 결과물의 수준, 제출 방식까지 전부 제각기 차이가 있다.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즉각 계획을 수립해서 착착 진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압박감을 느끼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까지 질질 끌다가 아슬아슬하게 끝내는 사람이 있고 아주 여유롭게 시간을 다 흘려 보낸 다음 막판에 허겁지겁 완료하거나 결국 약속한 기한에 정해진 일을 마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습관이 집에서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키고 친구와 약속을 하는 비교적 가벼운 일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좌우할지도 모르는 중차대한 일을 하면서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사람이 좀 느긋할 수도 있지, 뭐 그리 대수로운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자는 꾸물대는 습관이야말로 훨씬 더 큰 성과를 거두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싹부터 잘라내는 핵심 장애물이라고 단언한다. 기가 막히게 훌륭한 기술과 전략이 아무리 많아도 오직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 질질 그는 습관부터 고쳐야 더 발전할 수 있다. 안 좋은 습관을 고치는 요령을 블로그와 책을 통해 사람들과 공유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반드시 이겨내야 할 꾸물대는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과 그래야만 하는 이유를 제시한다. 성적을 올리고 싶은 학생, 도무지 성과가 나오지 않아 고민인 직장인, 몸에 해로운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나쁜 식습관 때문에 고민인 사람, 경제적인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 등 스스로가 만든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긴한 팁이 될 만한 정보가 짤막하고 쉽게 나와 있다.

각양각색인 꾸물대는 이유는 모두 '핑계'다! 질질 끄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팁

만사에 꾸물대는 사람들도 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 완벽주의자라 허술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절대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에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또 우선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일단' 제쳐두었다가 제대로 몰입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 순서와 상관없이 난이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다음 가볍고 쉽게 완료할 수 있는 것부터 해치워야 마음이 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 또는 해야 하는 일인 건 잘 알지만,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손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스스로 느끼기에 일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껴지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몰라서 주저하다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도 있다. 글을 쓸 때나 그림을 그릴 때, 중요한 대화를 나눌 때 시작이 원만하면 방향이 잡혀서 그 뒤는 알아서 풀리는 기분이 드는 것처럼 주어진 일도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서 시작할지 가늠하느라 시간을 흘려 보내는 것이다. 그와 달리 계획을 세워서 제때 시작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집중력이 부족해서 이런저런 것에 너무 쉽게 정신이 팔리는 사람도 있다. 스마트폰, 텔레비전, 인터넷은 기본이고 주변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 등에 너무 산만해서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적지 않다. 감당하지 못할 만큼 너무 많은 일감을 다 끌어 안고 있는 바람에 물리적으로 정말 시간도 에너지도 부족한 사람도 있다. 저자는 이처럼 각양각색인 꾸물대는 이유가 왜 '핑계'일 수밖에 없는지 조목조목 지적하고, 각각의 원인에 맞게 질질 끄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팁을 알려준다. 모든 습관은 어느 정도 정신력 싸움인 만큼 계속해서 마음을 다잡고 꾸물대고 싶은 생각이 처음부터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생활 속 실천 요령이 단계적으로 소개된다.

<목차>

머리말
- 우리 아버지가 거의 돌아가실 뻔한 날
- 꾸물대는 습관이란?
- '꾸물거림 방지 습관' 소개
- 저자 소개
사람들이 꾸물대는 여덟 가지 이유
1단계: 현재 목표를 찾아라
2단계: 다섯 가지 핵심 프로젝트를 추려라
3단계: 분기별 S.M.A.R.T 목표를 세워라
4단계: 상충되는 일, 의무적인 일은 과감히 거절하라
5단계: 주간 스케줄을 수립하라
6단계: 꾸물대는 습관을 이겨내기 위한 14일 실천 계획
7단계: 꾸물대는 습관을 이겨내기 위한 작전 계획
'꾸물거림 방지 습관'에 관한 마지막 한 마디

<저자 소개>

S. J. 스캇(S. J. Scott)은 나쁜 습관을 고치는 방법에 관한 책을 시리즈로 쓴 저술가로 블로그 'Develop Good Habits'도 운영하고 있다.

제목 : POWERED BY CHANGE
가제 : 풍차 경영법: 변화를 에너지로 쓰는 기술
저자 : Jonathan MacDonald
출판사: Nicholas Brealey Publishing
발행일: 2018년 4월 9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경영

* 2018년 4월 「선데이타임스」 논픽션 베스트셀러 4위
* "자기 사업을 어떻게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 직접 시험해봐야 한다. 바깥에서 누군가가 벌써 그러고 있으니까." – IKEA 대표, 제스퍼 브로딘
* "현대 사회에서 변화는 끊이지 않지만 실제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작은 단서나마 찾는 회사나 리더는 별로 없다. 이 책은 단서 이상의 것, 전체적인 길잡이 지도를 제공한다." – 테크크런치(TechCrunch) 편집장 마이크 부처

오래된 중국 속담 중에 이런 것이 있다. "변화의 바람이 불면 벽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풍차를 세우는 사람이 있다." 일상생활이나 비즈니스 세계에서 변화가 쉼 없이 이어진다는 사실만큼 그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도 대다수가 수긍한다. 신생 기업뿐만 아니라 최첨단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한 세계적인 기업도 변화를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는 대처 방안이 없어 보이는 이 거센 변화의 바람에 맞서는 법을 위의 중국 속담에서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을 막무가내로 막으려 하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기업을 더 성장시키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변화의 특성과 속도를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이는 것, 즉 변화를 사업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 인지하고 사업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부터가 이미 적응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저자는 점점 더 거세게 휘몰아치는 변화의 바람을 이기려 하지 말고 자원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신선한 아이디어와 함께, 그 방법을 제시한다.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핵심은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데 있다는 설명과 함께 저자는 바람을 이용할 수 있는 풍차를 세울 것을 제안한다. 목적과 사람, 제품, 절차로 구성된 네 개의 커다란 날개가 하나로 결합되어 유기적으로 작용할 때 비로소 거대한 날개 전체가 움직이고 새로운 에너지가 생산된다. 저자가 제시한 이 풍차 이론에서 첫 번째 날개에 해당하는 목적은 조직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의미한다. 조직의 기능을 리더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갑작스러운 변화에 조직 전체가 얼마나 유동성 있게, 혁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가 좌우된다. 두 번째 날개인 사람은 조직의 목적이 무엇이든 그것을 달성하는 핵심 요소이다. 명확한 목적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에 뛰어드는 구성원들이 주축이 되어야 풍차의 세 번째 날개인 제품이 완성된다. 그리고 더 많은 소비자에게 사랑 받는 유용하고 매력적인 제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업무 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네 번째 날개인 절차는 목적부터 사람, 제품에 이르는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요소이다. 저자는 이 네 가지 날개가 튼튼하게 갖춰진 풍차가 마련된다면 유연한 사고가 가능해지고 적시에 적절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변화가 위협이 아닌 득이 된다고 이야기한다.

세계적인 기업과 스타트업 업체까지 다양한 규모의 사업체가 이 같은 방식으로 변화를 적극 활용해온 사례와 함께 혁신, 리더십, 전략 분야에서 저자가 강연과 컨설팅을 하면서 체득한 날카로운 통찰이 곳곳에 제시된 간결하면서도 유익한 지침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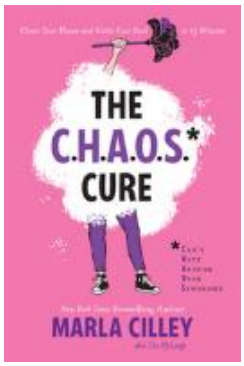
<목차>

서문 - IKEA 대표 제스퍼 브로딘
1부. 풍차 이론
1. 끊임없는 변화의 실상
2. 변화를 에너지로: 나의 경험
3. 진화와 혁신
4. 체계적인 대응
2부. 풍차 세우는 법
날개 1: 목적 (5-7장)
날개 2: 사람 (8-10장)
날개 3: 제품 (11-13장)
날개 4: 절차 (14-16장)
결론: 성공을 위한 계획

<저자 소개>

조너선 맥도날드(Jonathan MacDonald)는 매년 3만 명이 넘는 청중 앞에서 강연하는 비즈니스 전략가이자 발명가, 투자자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유니레버, 레고 등 세계적인 기업과 함께 일했다. 업체 'Thought Expansion Network'의 창립자이자 Moneycatcha Pty Ltd에서 수석전략가를 맡고 있다.

제목 : THE CHAOS CURE
가제 : 마음을 채우는 청소
저자 : Marla Cilley
출판사: Seal Press
발행일: 2018년 12월 18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실용



*** 정리정돈과 청소 전문가가 가르쳐주는 간단하고 효율적인 청소 비법**

가장 안락하고 편안해야 할 집이 불편할 때가 있다. 여기저기 널려 있는 옷가지, 싱크대에 잔뜩 쌓여 설거지를 기다리는 그릇들, 예쁜 햇살이 비추는 곳마다 드러나는 흙과 먼지들, 애완동물이나 아이들이 어지른 흔적들이 모른 척 할 수 없는 정도가 되면 왠 만해서는 마음 편히 휴식을 취할 수가 없다. 문제는 치우고 정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는 점이다. 다른 할 일이 많아서 일수도 있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엄두가 안 나서 그럴 수도 있다. 집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팁부터 소소하지만 귀중한 생활의 지혜를 나누며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세요(Finally Love Yourself)'를 줄인 '플라이 레이디(FlyLady)'라는 별칭으로 더 많이 알려진 저자는 이 책에서 이미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유용한 청소 요령을 소개한다. 깔끔하게 정돈된 집을 만들고 싶으면서도 그러지 못해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만한 심리적인 부담감을 덜어주고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발한 팁이 가득 담겨 있다. '집이 난장판이라 아무도 초대하지 못하는 상태(Can't Have Anyone Over Syndrome)'를 뜻하는 신조어 카오스(CHOAS)를 주제어로 삼아, 그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타이머 사용하기, 포스트잇 붙이기 등 매우 구체적인 방법으로 알려준다.

우리는 대부분 어릴 때부터 치우라는 잔소리를 귀가 따갑게 들으면서 자랐다. 저자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청소는 안 하고 싶은 일이라는 인식을 깊이 심었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자신의 생활 공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청소를 안 하는 것이 결코 마음 편한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갑자기 친구나 이웃이 집에 들렀을 때 앉을 자리조차 없다면 그런 기분이 들 수밖에 없다. 저자는 부정적인 감정부터 불러일으키는 청소와 정리정돈은 지극히 당연한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청소를 '잘' 하는 비법을 찾기 전에 청소에 대한 인식부터 바꾸고 생활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이에 저자는 주변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노력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소개한다. 더불어 반발심과 게으름 피우고 싶은 생각부터 일으키는 심리적인 흐름을 집어내서, 시작도 하기 전에 부정적인 생각부터 하지 않도록 스스로 방지하는 요령도 알려준다. 가령 우리가 청소를 시작조차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지금 할 일이 태산이고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데 저걸 끝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인데, 저자는 굳이 온 에너지와 시간을 쏟지 않아도 뚝딱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지름길을 소개해서 가볍게 시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5분만에 해치우기, 15분이면 끝나는 청소 등 실용적인 청소 방법과 더불어, 집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을 현명하게 돌볼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배울 수 있다.

<목차>

머리말: 깔끔하고 평온한 생활을 찾아가는 길 / 이 책에서 제공하는 정보
무장하라! 플라이 레이디가 추천하는 다섯 가지 필수 도구
- 욕실 표면 깨끗하게 만들기
- 욕실을 최고로 깨끗하게 닦아내는 법
- 비누는 비누다
- 침실 사용법
- 베개의 기초
- 갈 곳 잃은 티셔츠가 모여드는 곳
- 양말과 속옷의 대대적인 정리
핫스팟 없애기 (총 4장)
더 이상 엉망일 수 없는 요리 시간 (덧붙임: 팬케이크!) (총 10장)
집도 청소하고 여러분도 청소하자 (덧붙임: 쿠키!) (총 10장)
맺음말: 재미없고 지루한 일은 버려라. 꿈을 갖자.

<저자 소개>

말라 실리(Marla Cilley) 정리정돈과 시간 관리를 도와주는 전문가로 활동해 왔다. '플라이 레이디(FlyLady)'라는 별칭으로 더 많이 알려졌으며 동명의 웹 사이트(FlyLady.net)를 통해 수많은 정보를 공유해 왔다. 저서로는 베스트셀러 『Sink Reflections』과 『Body Clutter: Love Your Body, Love Yourself』가 있다.